

세친의 『정토론』이
원효의 『아미타경소』에 미친 영향
- 『정토론』 인용구절을 중심으로

김문선(미탄)*

• 목 차 •

- I. 머리말
- II. 세친의 『정토론』에 대하여
- III. 『아미타경소』에 인용된 『정토론』
 1. 경(經)의 대의(大意)에 보인 인용
 2. 경(經)의 근본요지[종치(宗致)]에 보인 인용
 3. 『아미타경』의 본문 해석에서 보인 인용
- IV. 세친의 영향과 원효의 독창성
 1. 세친의 영향
 2. 『정토론』에 없는 원효의 독창성
- V. 맺음말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 『淨土學研究』 제34집, 2020년 12월, pp.165-199.

한글요약

인도 쿠샤나시대 아미타불상의 명문(銘文)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인도의 정토신앙은 서기 1~2세기경에 성립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정토사상은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하여, 후세에는 더욱 심화·발전된다. 그 사상은 4세기에 활동한 인도의 대학자인 세친(世親)에까지 이어져,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중심으로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를 쓰기에 이른다. 이것은 정토 경전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주석서로서 정토사상의 원류를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헌이며, 후대 학자들에게 미친 그 영향 또한 크다.

이를 7세기 신라의 학자인 원효가 『불설아미타경소(佛說阿彌陀經疏)』를 쓰면서 다수 인용했다. 세친의 언어로 『아미타경』을 해석하고, 다시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의 인용구를 자세히 사고(思考)하여 『아미타경』의 뜻을 풍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원효만의 정토사상 또한 드러난다.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토론』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아미타경소』 내용의 큰 흐름이 바로 『정토론』의 내용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 정토사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친의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가 일본의 정토사상까지 이어지는 원효의 정토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주제어

『아미타경소』, 『정토론』, 원효, 세친, 이중청정

I. 머리말

한국의 정토학은 원효(元曉, 617~686)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원효는 『무량수경중요』나 『아미타경소』와 같은 저서를 통해 극락정토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또한, 책을 집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춤과 노래로 직접 염불(念佛)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린 것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원효가 쓴 『아미타경소』(이하 『경소(經疏)』 또는 소(疏))에는 인도의 논사인 세친(世親, 320~400)이 쓴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¹⁾(이하 『정토론』 또는 논(論))의 내용이 다수 인용되어 있다. 두 학자가 활동하던 지역은 인도와 동아시아로 언어·문화·역사 등의 환경이 상당히 다르고, 3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間隙)이 있음에도 그 정토학에 대한 정신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소』와 『정토론』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경소』는 길이가 짧고, 그 내용이 『무량수경중요』(이하 『중요(宗要)』)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인지, 원효의 정토학 연구는 『경소』보다는 『중요』에 집중하는 면이 있다. 또한 세친의 저서 중 정토학에 대한 것이 『정토론』이 유일하며, 정토학자로서의 면모보다 유

1) 세친의 『무량수경우파제사원생계(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우파제사(優婆提舍)한 것이다. 보리류지(菩提流支)의 한역본만 남아 있으며, 긴 글이 아님에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의 정토학에 있어 초석이 되었다. 『정토론』은 5언(言) 4구(句)를 1행으로 해서, 총 24행(行)으로 이루어진 계승인 총설분과 그에 대한 주석본인 산문형식의 해의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식학자로서 더 주목받고 있어, 『정토론』에 대한 국내 논문은 정토학 입장에서 쓰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주명철²⁾은 유식학적 측면에서 쓰고 있으며, 김지곤³⁾은 극락을 공간적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진실지혜와 무상(無相)의 세계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논문에 『경소』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김현희⁴⁾는 『중요』와 『경소』도 원효가 유식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라 하여, 『경소』와 『정토론』에 대한 연구가 글 자체의 내용보다 저자 사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저자인 원효가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대의(大意)를 간과(看過)할 수 있으므로 재고(再考)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도 정토학의 큰 줄기인 세친의 『정토론』이 신라의 원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문헌만으로 그 영향을 가늠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으나, 일단 『아미타경소』에 인용된 『정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경소』의 내용 중 『중요』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된 것은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II. 세친의 『정토론』에 대하여

세친은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극락을 찬탄하는 노래[願生偈]를 지었다. 이는 『정토론』의 총설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

-
- 2) 주명철, 「정토왕생과 보살행 오념문」, 『불교학연구』 제33호, 2012, pp.271-305.
 3) 김지곤, 「『정토론』의 불토관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1집, 2012, pp.127-153.
 4) 김현희, 「원효의 정토사상과 무애의 아름다움」, 『한국미학』 10권 1호, 2011, pp.15-48, p.30

토수행 방법인 오념문(五念門)을 기초로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 수행은 예배·찬탄·작원·관찰·회향이며, 이 중 관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계승을 이루고 있다. 『정토론』의 해의분에서는 앞선 「원생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회향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먼저 「원생계(願生偈)」의 주요 내용인 오념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⁵⁾ 예배(禮拜)는 몸으로 짓는 업으로 아미타여래에게 예배하는 것이며, 찬탄(讚歎)은 입으로 짓는 업으로 여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것이다. 작원(作願)은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극락에 왕생하려는 생각을 일념(一念)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세친은 사마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찰(觀察)은 29가지의 극락 장엄을 지혜로써 관찰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파사나 수행이다. 회향(廻向)은 고통받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서, 대비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정토론』의 해의분에는 ‘오념문’이 ‘오종문(五種門)’을 거치면서 ‘오종공덕(五種功德)’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가 바로 세친이 ‘아미타여래에게 귀의하여’ 이루고 싶은 해탈의 청사진(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정토론』의 요지(要旨)를 담고 있으므로 다소 길지만, 원문을 살펴보자.

또 다섯 가지 문이 있어서 점차로 다섯 가지 공덕을 성취함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문인가? 첫 번째는 근문(近門)이고, 두 번째는 대회중문(大會衆門)이고, 세 번째는 택문(宅門)이고, 네 번째는 옥문(屋門)이고, 다섯 번째는 원림유희지문(園林遊戲地門)이다. 이 다섯 가지 문에서 처음 네 종류의 문은 입공덕(入功德)을 성취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문은 출공덕(出功德)을 성취하는 것이다.

제1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을 예배하고 그 국토에 나고자 함이니, 안락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룸하여 제1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5) 『정토론』(大正藏 26卷, 231중) 참조.

제2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되 이름의 뜻에 수순하여 여래의 명호를 부르고 여래의 광명상(光明想)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회중(大會衆)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두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제3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한마음으로 그 국토에 나기를 소원하고 사마타와 적정삼매행을 닦아서 연화장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제4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묘한 마음으로 그 국토의 미묘한 장엄을 관찰하며 비파사나를 닦아서 그곳에 이르러 갖가지 법의 맛과 즐거움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네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출(出)의 제5문은 대자비로써 온갖 괴로움에 번민하는 중생을 관찰하고, 또한 응화신으로 생사의 동산과 번뇌의 숲에 (다시) 들어가 신통으로 노닐면서 교화할 땅에 이르러 본원력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출(出)의 제5문이라고 한다.

보살은 네 가지 문으로 들어가서 자리행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출(出)의 제5문에서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회향행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자리이타를 행하는 다섯 문을 닦으면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이는 세친의 정도사상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미타여래를 예배하고 찬탄하여, 오직 한마음으로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고, 극락의 장엄을 관찰하면 왕생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생사의 동산과 번뇌의 숲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살펴보자.

6) 『정토론』(大正藏 26卷 233상).

<표 1> 오념문과 오종문, 오종공덕성취⁷⁾



이러한 세친의 정토사상이 『경소』에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Ⅲ. 『아미타경소』에 인용된 『정토론』

7) 山口 益, 『世親の淨土論-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の試解-』, 法藏館, 1966, p.179
참고.

원효는 『경소』를 세 부분⁸⁾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아미타경』(이하 경(經))의 대의, 둘째는 경의 종치(宗致)를 해석하며, 마지막은 본문 해석이다. 이를 따라 인용된 『정토론』의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經)의 대의(大意)에 보인 인용

원효는 대의(大意)에서 자신의 정토사상에 대한 요체(要諦)를 밝힌다.

무릇 중생의 마음이라 할 때의 마음은 상을 여의고, 성을 여임이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 중략 … 이에 혹은 오염된 업 때문에 오락악세의 물결을 따라 오래도록 윤회하고 … 중략 … 그리하여 석가모니에 이르러 이 예토(穢土)에 나투셔서 오락(의 중생들)을 경계하시고 왕생하기를 권하셨으며, 아미타여래께서는 저 청정한 국토에서 삼배(三輩)를 이끌어 왕생하도록 이끄신다. … 중략 … 정토를 보여서 가히 원하게 하고, 묘덕을 찬탄하여 가히 귀의케한다. …⁹⁾

‘사바세계와 그 중생이 오염되었기에 윤회를 거듭하므로, ‘석가모니’께서 왕생하기를 권하셨고, ‘아미타여래’는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하며 정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밝힌다. 원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주장하는 극락왕생의 방법을 바로 밝히고 있다. 이때 『정토론』의 오념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다음 구문이 등장한다.

지금 이 경은 이에 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큰 뜻이며, 네 무리[사배(四輩)]가 도(道)에 들어가는 긴요한 문이며, 정토가 가히(왕생)발원할 만함을 보여, 묘덕을 찬탄하여 가히 귀의하게 함이라. ‘묘덕에게 가히 귀의할 수 있음’은 귀로 이 경의 이름을 듣자마자

8) 『경소』(한불전 1권, 562하).

9) 『경소』(한불전 1권, 562하).

일승(一乘)에 들어가서 돌아옴이 없다는 것이며,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삼계(三界)에서 나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니, 하물며 예배하고 전념하고 찬탄하여 관찰까지 하는 것이겠느냐! … 중략 … 천상의 음악을 듣고 생이 없음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출공덕(出功德)의 제5문으로 나와서 생사의 동산으로 고삐를 돌려, 번뇌의 숲에서 쉰다.¹⁰⁾

원효는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삼계(三界)에서 나와 돌아가지 않는다”라 하여, ‘염불’을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논(論)의 오념문을 언급한다. 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하물며 예배(禮拜)하고, 전념(專念)하고, 찬탄(讚詠)하여, 관찰(觀察)까지 하는 것이겠느냐!”에서 예배·전념·찬영·관찰을 오념문의 예배·찬탄·작원·관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출공덕의 제5문’이 나오므로써 오념문이 완성되기에, 이 부분을 맥락상 오념문 중 사념문의 자리행에서 제5문의 이타행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배·전념·찬영·관찰은 순서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찬영(讚詠)을 오념문의 찬탄으로, 전념(專念)을 작원(作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물론 전념은 오로지 왕생할 것을 발원하는 것, 또는 오로지 아미타여래를 생각하는 염불(念佛)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미 찬영에서 염불의 뜻은 포함되므로 작원(作願)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정토론』의 설명으로 비추어 보아도 작원에 ‘일심전념(一心專念)’¹¹⁾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원효는 『경소』에서 『정토론』을 인용할 때, 뜻으로는 상통(相通)하여 어긋나지 않지만, 완전히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원효가 살던 시절에는 현재와 같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이해되는 부분

10) 『경소』(한불전 1권, 562하-563상).

11) 『정토론』(大正藏 26卷, 233상).

이다. 그러므로 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 인용구의 마지막에서도 극락에 왕생하여 깨달은 보살이 중생을 위해 이타행을 하는 것을 원효는 “생사의 동산으로 고삐를 돌려, 번뇌의 숲에서 쉰다[回轡生死之苑 憩煩惱之林]”라고 했으나, 세친은 “생사의 동산과 번뇌의 숲에 (다시) 들어가 신통으로 노닐면서[入生死園煩惱林中 遊戲神通]”라고 쓰고 있다. 이는 회향문의 ‘원림유희園林遊戲’를 말하고 있으므로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경(經)의 근본요지[종치(宗致)]에 보인 인용

원효는 『아미타경』의 종(宗)을 이중청정으로 들고 있다. 이중청정은 세친이 『정토론』에서 극락의 성질을 묘사한 개념이다. 원효는 종치(宗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정토론』을 상당 부분 인용한다. 이중청정은 히라카와가 ‘아미타여래의 불국토인 극락’을 ‘정토(淨土)’라고 이름 붙이게 된 주요 실마리 중 하나라고 했을 정도로 정토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¹²⁾

1) 『아미타경』의 종(宗)인 이중청정에 대하여

원효는 『아미타경』의 종(宗)을 이중청정(二種淸淨)으로 본다.

이 경은 바로 삼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의 청정을 그 종(宗)으로 삼고 있다. … 중략 … 논서에서 말하기를, “이 청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세간청정이며, 둘째는 중생세간청정이다”라고 자세히 말했기 때문이다.¹³⁾

12) 히라카와 아키라(平川 彰), 「淨土教の用語について」, 『日本仏教学会年報(42)』, 日本佛教學會, 1976, pp.6-9 참조.

13) 『경소』(한불전 1권, 563상).

원효가 말하는 ‘논서’는 『정토론』을 가리킨다. 우선 『정토론』에서의 이종청정을 알아보자. 「원생계」 24행 중 제3행에서 23행까지가 오념문 중 관찰문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정토론』의 해의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 이를 이종청정이라고 하는데, 기세간청정에는 17가지 불국토 공덕장엄성취가 있고, 중생세간청정으로는 불공덕장엄성취 8가지와 보살공덕장엄성취 4가지¹⁴⁾가 있다고 한다. 세친은 이종청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청정에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하니, 어떤 것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기세간(器世間)의 청정이고, 둘째는 중생세간의 청정이다. … 중략 … 이와 같이 일법(一法)(이 현현하여 이루어지는) 대상에 두 종류의 청정이 포섭됨을 알아야 한다.¹⁵⁾

이 이종청정을 『정토론』에서는 29종으로, 『경소』에서는 19종으로 설명한다. 김영미¹⁶⁾는 이를 원효의 독창적 견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원효의 견해가 아니라, 『아미타경』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토론』이 29종인 것은 『무량수경』을 우과제사했기 때문이고, 『경소』가 15종인 것은 『아미타경』을 소(疏)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원효도 『경소』에서 밝히고 있다.

원효는 이 청정을 네 가지 차원에서 해석한다. 첫째는 『본업경』에 근거한 여래만이 들어가는 원만문(圓滿門), 둘째는 『섭대승론』에 근거한 8지(地) 이상의 보살이 들어가는 일향문(一向門), 셋째는 『해심밀경』에 근거한 극환희지(極歡喜地) 이상의 보살이 들어가는 순정문(純淨門), 그리고 넷째가 『무량수경』에 근거한 오직 무퇴자(無退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정취문(正定聚門)이라고 한다.¹⁷⁾ 그렇다면, 『아미타경』의 이종청

14)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중-하).

15)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중-하).

16) 김영미, 「『불설아미타경소』 해제」, 『미륵상생경종요 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81

정은 위 네 가지 차원 중 어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다음을 보자.

일반적으로 논하자면[通論], 극락세계는 이 네 가지 문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금 이 경의 종(宗)이 이종청정(인 것)은 바로 제4 정정취문을 보여, 부정(不定)종성인 성문, 그리고 범부까지도 또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여기서 원효는 『아미타경』의 이종청정을 네 번째 정정취문에 입각하여 해설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량수경』의 이종청정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원효는 『무량수경』의 제11원¹⁹⁾을 인용하여 정정취(正定聚)라야 극락에 왕생한다고 한다. 원효는 이 부분에서 세친을 인용하면서도 이종청정의 ‘청정’을 네 가지 문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만의 해석을 하고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종요』에서 밝히는 정토의 청정성은 다음과 같다.

위의 네 가지 문(門)²⁰⁾으로 설하는 바 정토는 모두 여래가 서원하여 이룬 바이다. (정토에) 태어난 자가 자력(自力)으로 이루는 바가 아니다. 예토와 다른 기세계(器世界)가 오직 중생의 공업(共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와는 같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통틀어 청정한 국토라고 이른다.²¹⁾

이는 여래의 정토(淨土)는 공업(共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

17) 『경소』(한불전 1권, 563상) 참조.

18) 『경소』(한불전 1권, 563상) - 주석 15)에 바로 이어지는 구문이다.

19) 『무량수경』(大藏經36券, 268상).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국토 중생이 정정취(正定聚)에 머물러 반드시 멸도(滅度)에 이르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20) 『종요』와 『경소』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문은 내용은 같으나, 그 소의 경전이 다르다.

21) 『종요』(한불전 1권, 555상).

래의 원행(願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국토가 청정하다는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정철호²²⁾는 위 인용구야말로 원효의 정토관이 타력사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위 원효의 주장이 극락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불국정토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소』의 종(宗)인 이종청정을 장엄공덕성취를 나열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이승종(二乘種)과 여인의 불생(不生)에 대하여

‘이승종과 여인의 불생’은 『정토론』에서는 기세간청정의 대의문(大義門)공덕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불국토장엄의 청정성²³⁾을 찬탄하는 것이다.

대승의 선근을 닦아서 이루어진 세계[극락(極樂)]는
평등하여 꺼리거나 싫어한다는 이름조차 없어서,
여인과 건강하지 못한 자²⁴⁾,
이승종(二乘種)은 태어나지 않는다²⁵⁾

얼핏 『무량수경』과 논(論)이 모순되는 듯 보이는 이 부분을 원효는 『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회통하고 있다.

『정토론』에서 ‘이승의 종성은 태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정된 종성(인 이승)²⁶⁾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논에서 ‘여

22) 정철호, 「元曉의 淨土觀」, 『정토학연구』 제1권, 1998, p.114

23)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상) 참조. 17가지 불국토 장엄 중 하나.

24) 근결자(根缺者)를 말한다. 육근(五根)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결함이 있는 자인데, 우리말로 풀 때는 ‘건강하지 못한 자’라고 해석했다.

25) 『정토론』(大正藏 26卷, 231상).

26) 요코야마 코이치, 장순용 譯, 『유식이란 무엇인가?』, 세계사, 1996. p.269 참조. 독각(獨覺)과 성문(聲聞)은 정성(定性)의 이승(二乘)이라고 하며, 그 종성이 분

인은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실제로 (과보로 태어난) 여인이 없기 때문이다. 변화한 새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²⁷⁾

원효는 이 부분에서 ‘근결자(根缺者)’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여인과 이승종성(二乘種性)이 태어날 수 없는 이유를 『아미타경』의 ‘변화한 새’에 빗대어 결론 맺고 있다. 극락에서 노래하는 새는 ‘전세(前世)에 지은 죄의 과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미타여래께서 법음(法音)을 퍼트리기 위해 만든 것’²⁸⁾이다. 원효는 이를 『중요』에서도 인용하여 『경소』보다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요』에서의 해설을 살펴보자.

『정토론』에서 말하는 “여인과 근결(根缺), 이승종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종성인 이승(二乘)을 말하는 것이지, 부정근성인 성문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승종이라고 한다. 이 뜻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또 여인과 근결이라 한 것은 저곳(극락)에 태어날 때는 여인도 아니고 근결자(根缺者)도 아닌 것을 일컫는다. 차토[사바세계]의 여인 등이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위제희(부인)이 왕생할 수 있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다.²⁹⁾

원효는 『중요』에서 여인과 근결자가 극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소』에 말한 것처럼 ‘극락에 존재하는 새’와 같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문장 속에 있는 이승(二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고, 결정종성은 극락에 태어나지 못하고, 부정근성은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극락세계에 있는 성문과 연가에 관한 경(經)과 논(論)이 보이는 차이를 회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원효는 이를 『중요』에서 『무량수경』

명히 정해져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에 들어간다.

27) 『경소』(한불전 1권, 563중).

2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6) 참조.

29) 『중요』(한불전 1권, 555상).

제14원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제14원을 살펴보자.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성문(聲聞)의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있거나, 또는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인 연각을 백천겁에 모두 함께 헤아려 그 수를 알 수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³⁰⁾

극락이 존재함은 이미 이 원이 성취된 것이므로, 실제로 극락에는 성문과 연각이 셀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무량수경』에는 이승(二乘)인 성문이 대승보살과 함께 극락 대중으로 나오는 부분이 다수 있다. 이미 성문들이 극락에 있지만, 결정중성인 이승이 아니라, 부정근성이라는 것이다.

‘결정중성의 이승이 왕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장휘옥은 “소승불교적인 수행만을 고집하여 중생구제를 도외시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원효의 예리한 비판의식”³¹⁾이라 했다. 이는 원효가 경전과 논(論)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화쟁(和靜)하게 하려는 독특한 해설이라 본 것이다.

세친은 ‘대의문장엄공덕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해설한다.

대의문을 장엄하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계승에서 ‘대승의 선근(을 닦아서 이루어진) 세계[극락(極樂)]는 평등하여 꺼리거나 싫어한다는 이름조차 없어서, 여인과 건강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승의 부류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토의 과보는 두 가지를 나무란다거나 싫어한다는 허물을 여의었음을 옹당히 알라. 첫째는 몸이며, 둘째는 이름이다. 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승(二乘)의 사람이며, 둘째는 여인이며, 셋째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세 가지의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체(體)가 꺼리거나

30) 『무량수경』(大正藏36卷 268상)

31) 장휘옥, 「원효는 왜 定性二乘의 왕생을 부정했는가」, 『원효학연구』 5집, 원효학연구원 2000, p.344.

싫어함을 여의고 있으니, 이름 역시 세 가지가 있는 것은 다만 세 가지 체(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승(二乘)이나 여인이나 건강하지 못하다는 세 가지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꺼리거나 싫어함을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등(等)’이라는 것은 평등하여 하나의 모양이기 때문이다.³²⁾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모양과 이름에 상관없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극락 장엄의 정수(精髓)로 이해한 듯, 『경소』에서 여러 번 다루고 있으며, 『종요』에서도 언급한다.

3. 『아미타경』의 본문 해석에서 보인 인용

원효는 경(經)의 본문을 서분(序分)·정설분(正說分)·유통분(流通分)으로 나누고 있다. 정설분은 다시 세 부분을 나누어 각각을 이종청정의 과(果)와 이종정인을 닦을 것을 권하는 것[勸修二種正因], 그리고 예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³³⁾ 이 중 정설분의 이종청정의 과(果)를 의과(依果; 기세간청정)와 정보(正報; 중생세간청정)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다수 『정토론』을 인용한다. 권수이종정인(勸修二種正因)에서는 한번 인용한다.

1) 의과(依果)의 내용에 드러난 인용

『아미타경』의 정설분 중 첫째 문단³⁴⁾에 대해서는 『정토론』의 불국토 공덕장엄 중 무제난(無諸難)공덕성취³⁵⁾를 인용하고 있다.

32)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상).

33) 『경소』(한불전 1권, 564상).

34)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6하).

35)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상).

둘째 문단³⁶⁾에 대해서는 논(論)의 불국토공덕장엄의 장엄(莊嚴)공덕성취 중 땅[地]의 공덕성취³⁷⁾를 인용한다.

셋째 문단³⁸⁾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수(水)공덕이다. 이는 논(論)의 세 가지 장엄(莊嚴)공덕성취³⁹⁾ 중 하나인데 인용된 계송은 정토론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경(經)의 “계단과 누각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⁴⁰⁾는 내용에 논(論)의 종종사(種種事)공덕성취⁴¹⁾를 인용한다. 마지막은 “연꽃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은데, 푸른색은 푸른 빛이 난다”⁴²⁾인데, 논(論)의 묘색(妙色)공덕성취⁴³⁾를 인용한다.

넷째 문단⁴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음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중 기악(伎樂)공덕, 보배땅[寶地]공덕, 꽃비[雨華]의 공덕 그리고 자재(自在)공덕에 대해 논(論)의 계송이라고 인용한 것은 『정토론』에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 수용(受用)공덕⁴⁵⁾에서 논(論)의 “부처님 법의 맛을 사랑하고 좋아하여/선의 삼매를 밥으로 삼는다⁴⁶⁾”를 인용한다. 이때 원효는 『무량수경』⁴⁷⁾을 들어 극락의 음식 두 종류 중에서 논(論)은 내식(肉食)을 일컫는 것이라 했다. 반면 『아미타경』의 “타방의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곧 식사할 때가 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밥을 먹고 걷는다”⁴⁸⁾는 것은 외식(外食)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섯째 문단⁴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덕으로 가린다. 첫째는 변화(變

36)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6하).

37) 『정토론』(大正藏 26卷, 231하).

3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39) 『정토론』(大正藏 26卷, 231하).

40) 『경소』(한불전 1권, 564중). - 『무량수경』(大正藏 12卷, 347상02-04).

41) 『정토론』(大正藏 26卷, 230하).

42) 『경소』(한불전 1권, 564중). - 『무량수경』(大正藏 12卷, 347상04).

43) 『정토론』(大正藏 26卷, 230하).

44)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45) 『경소』(한불전 1권, 564중).

46) 『정토론』(大正藏 26卷, 231상).

47) 『무량수경』(大正藏 36卷, 271중-하).

4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化)공덕이다. 『아미타경』에서 언급한 극락의 새들이 여래의 법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의문(大義門)공덕성취⁵⁰⁾이다. 원효는 “악도(惡道)와 같은 이름과 실체가 없기 때문”⁵¹⁾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經)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아! 너는 ‘저 새의 실체가 죄의 과보로 태어난 바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아! 저 불국토에는 오히려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거늘, 어찌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⁵²⁾

이는 48대원 중 극락에는 삼악도가 없다는 제1원⁵³⁾이 성취된 결과이다. 둘째 대의(大義)공덕을 설명한다. 여기서 원효는 경과 논(論)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한다.

생각하여 말하건대, 『아미타경』에서는 악도(惡道)(를 예로 들어) 꺼리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정토론』에서는 인도(人道)(를 예로 들어) 꺼리거나 싫어함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로 그를 들어 (언급했을) 뿐이니, 뜻은 말하는 바가 같다.⁵⁴⁾

경(經)의 새는 악도(惡道)의 예이며, 여성과 근결자는 인도(人道)의 예인 것이다.

여섯째 문단⁵⁵⁾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덕을 말한다. 첫째 허공(虛空)공덕⁵⁶⁾으로, 『정토론』의 허공(虛空)장엄⁵⁷⁾을 인용하고 있다. 둘째는 성(性)

49)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50) 『정토론』(大正藏 26卷, p.231a, 232a).

51) 『경소』(한불전 1권, 564하).

52)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53) 『무량수경』(大正藏 36卷, 267하).

54) 『경소』(한불전 1권, 564).

55)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56)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공덕성취이다. 경(經)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리불아! 저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을 성취하느니라.⁵⁸⁾

이 부분은 『정토론』의 “바른 도와 대자비는 세상을 벗어난 선근에서 생겨나”⁵⁹⁾를 인용하고 있다. 이 성(性)공덕의 성(性)에 대해 담란은 『정토론주(淨土論註)』에서 인(因)에 의한 성(性)⁶⁰⁾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삼계는 모두 유루(有漏)와 샷된 도로 생겨난 바이다. 커다란 꿈을 꾸며 오랫동안 잠들어, (그 속에서) 나오기를 바랄 줄 모르더라. 따라서 대자비를 일으켜 ‘내가 부처가 되어 위없는 정견으로써 청정한 국토를 삼계에 일으키리라’고 서원하였다. 성(性)이란 근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저 정토는 법성을 따른 것이어서, 법의 근본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 이 일은 『화엄경』의 「보왕여래성기(寶王如來性起)」의 뜻과 같다. 또 습(習)을 쌓아 성(性)을 이룬 것은 법장보살이 여러 바라밀을 모으고, 습(習)을 쌓아 이룬 바를 가리킨다. 또한 성(性)은 성종성(聖種性)이라 말한다. (무량수경의) 서문에 법장보장이 세자재왕여래의 처소에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깨달았을 때에 (이른) 계위를 성종성(聖種性)이라 이른다. 이 성(性) 중에서 사십팔대원을 발원하고, 수행하여, 저 국토를 일으키니, 곧 안락정토라 한다. 이것은 저 인(因)으로 얻은 바이며, 결과 속에서 인(因)을 말하

57) 『정토론』(大正藏 26卷, 231하).

5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59) 『정토론』(大正藏 26卷, p.230c.; 『경소』(한불전 1권, 564하)

60) 山口 益, 『世親の淨土論-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の試解-』, 法藏館, 1966, p.115 참조.

담란은 『왕생론주』에서 성(性)을 세 가지로 나눠서 주석하고 있다. 첫째는 이치에 따른 것이고, 둘째는 인(因)에 따른 것, 셋째는 과(果)에 따른 것이다.

므로 이름하여 성(性)이라 한다.⁶¹⁾

『정토론』의 성(性)공덕성취는 범장보살이 중생을 애민(哀愍)하게 여기는 대자비심과 그로 인해 생겨난 불국토의 성품을 함께 찬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상을 벗어난 선근에서 생겨난 (국토)’란 것은 범장비구가 48대원을 세우고 5겁을 수행하여 극락이 생겨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구절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제 ‘저절로 삼보(三寶)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 것은, 바로 성심(性心)이니, 출세간의 선근종자에 의지함으로써, 노력을 기대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삼보를 바르게 생각하여 싹뻐를 여의고, 바름으로돌아가게 된다. 도를 맺음하는 많은 행이기 때문에 정도(正道)라 이름한다. 이렇게 삼보를 염(念)하는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여 베푸는 것을 대자비(大慈悲)라고 이름한다.⁶²⁾

이것이 극락의 허공장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바람이 불어 극락에 울려 퍼지는 미묘한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아미타여래의 자비심으로 인한 것임을 위에서 답란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원효는 다시 극락 중생이 모두를 위해 회향하는 것까지 말함으로써 상구보리(上求菩提)하게 하는 힘과 다시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힘이 모두 대자비임을 말한다. 세친이 『정토론』에서 논하는 것과 그 뜻이 같다.

여기서 『아미타경』의 14가지 불국토 공덕장엄 성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원효는 총상(總相)으로서 “삼계(三界)의 육도(六道)를 뛰어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하기에 통틀어 청정세계라 이름한다⁶³⁾”라 하면서 세

61) 『왕생론주』(大正藏40卷, 828).

62) 『경소』(한불전 1권, 564하).

63) 앞의 책

친의 ‘청정공덕성취’⁶⁴⁾를 인용한다. 세친은 관찰문 중 기세간청정의 처음을 청정공덕성취로 시작해서 별상(別相)으로 18가지를 펼치고, 원효는 『경소』에서 의과(依果) 14가지를 밝히고 논(論)의 내용인 청정공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된다.

2) 정보(正報)의 내용에 드러난 인용

정보(正報)의 청정은 『아미타경』에서 ‘극락을 주재하는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인 이유’⁶⁵⁾를 사리불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효는 4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아미타불의 공덕인 주공덕(主功德), 둘째가 제자의 공덕인 반공덕(伴功德), 셋째가 극락 국토의 중생들이 아비발치라는 공덕을 설명하는 대중(大衆)공덕이며, 마지막이 그 대중 중 일생보처(一生補處)가 많다는 공덕인 상수(上首)공덕이다.

첫째 주(主)공덕은 아미타여래의 공덕이 수명이 무량한 것과 광명이 무량한 것임을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공덕(主功德)은 간략히 두 가지를 나타낸다. 첫째는 광명이 무량한 것이며, 둘째는 수명이 무량한 것이다. … 중략 … 또한 ‘성불하고 나서 지금 10겁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여 말하기를, ‘수명이 비록 무량하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지금이 시작인지, 끝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설명하면, 지금은 이미 지나간 바가 겨우 10겁이 지난 것이니, 이후 무량겁토록 머문다는 것을 응당히 알라.⁶⁶⁾

그러나 이에 대한 『정토론』 인용⁶⁷⁾은 『아미타경』의 내용과는 맞지 않

64) 『정토론』(大正藏 26卷, 231하).

65)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66) 『경소』(한불전 1권, 565).

67) 『정토론』(大正藏 26卷, 231-232) 참조.

아서인지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반(伴)공덕이다. 원효는 『아미타경』의 “저 부처님의 무량무수한 성문(聲聞)제자가 모두 아라한이다. 그것을 세어서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모든 보살들도 또한 그러하다”⁶⁸⁾라고 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토론』의 ‘권속(眷屬)공덕성취’를 인용한다.

권속의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계승에서 “깨끗한 꽃과 같은 여래의 대중은 정각(正覺)의 꽃으로 화생(化生)한다”고 했기 때문이다.⁶⁹⁾

꽃과 같은 청정함을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하여 말하면, 이 깨끗한 꽃(과 같은) 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일곱 가지의 정화(淨華)의 대중이 됨을 말한다. 무엇이 일곱이 되는가? 첫째는 계가 청정함[戒淨]이요, 둘째는 마음이 깨끗함[心淨]이며, 셋째는 견해가 깨끗함[見淨]이다. 넷째는 의심을 잘라내어 깨끗함[度疑淨]이고, 다섯째는 (어느 것이) 도이고, (어느 것이) 비도(非道)인지를 알아 견해가 청정함[道非道知見淨]이며, 여섯째는 지견을 행하는 깨끗함[行知見淨]이다. 일곱째는 행이 끊어져 지견이 깨끗함[行斷知見淨]이다. 이 중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나온다. 이 일곱 가지가 있어, 정화(淨華)의 대중이 부처를 좇아 정각(正覺)의 꽃 속에서 화생하는 것이다.⁷⁰⁾

원효는 경(經)에 소(疎)를 붙이면서, 『정토론』의 인용구 또한 해설한

『정토론』에서는 이 주(主)장엄을 기세간청정에서는 ‘주공덕성취(主功德成就)’라 하여 “정각을 이루신 아미타여래께서는 법왕으로서 훌륭하게 주지하신다”고 찬탄하고, 다시 중생세간청정에서도 ‘주(主)장엄’으로서 ‘천인장부의 무리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래를) 둘러싸 우러러본다’고 노래하고 있다.

6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중).

69) 『정토론』(大正藏 26卷, 231하).

70) 『경소』(한불전 1권, 565상). 이 내용은 『유가사지론』이 아닌 『유가론기(瑜伽論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가론기』(大正藏 42卷, 852하) 참조.

다. 다시 말해, 논(論)을 해석함으로써 『아미타경』을 다시 이해하고 있다. 대의(大義)공덕에서도 ‘안운(案云)’으로 시작하여 『정토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하다. 앞으로도 두 번을 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토론』을 인용하고 해설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중공덕이다. 경(經)에서 “극락국토 중생으로 태어나는 이는 모두 아비발치(阿毘跋致)이다”⁷¹⁾라고 한 것이다. 원효는 “(아미타여래를) 열 번 정도 염(念)하는 공덕으로 저 나라에 태어난 자들이 정정취에 들어가 영원히 물러남이 없기 때문⁷²⁾”이라고 하면서 논(論)의 “흔들림 없는 천인들은 청정한 지혜의 바다에 태어난다”는 중(衆)장엄⁷³⁾를 인용했다. 여기서도 ‘안운(案云)’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생각하여 말하면, 모두 여래를 의지하여 지혜의 바닷물에 젖어 들어, 정정취에 들어가 움직이고 구르지 않기 때문이다.⁷⁴⁾

원효는 극락 대중이 아비발치라는 해석 근거를 『정토론』에서 찾고 있다.

마지막은 상수(上首)공덕이다. 경(經)의 “그 가운데 일생보처(一生補處)가 많다. 그 수가 매우 많아서, 그것은 수를 헤아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단지 가히 무량무변 아승지겁(을 걸려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⁷⁵⁾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정토론』의 상수장엄⁷⁶⁾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원효는 “생각하여 말하면, 일생(보처)보살은 십지(보살) 중에서 수승함이 마치 (수미)산왕과 같기 때문이다”⁷⁷⁾라고 해설하여 논(論)을 설

71) 『아미타경』(大正藏 12卷, 595중).

72) 『경소』(한불전 1권, 565상).

73)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상).

74) 『경소』(한불전 1권, 565상).

75)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중).

76) 『정토론』(大正藏 26卷, 232상).

77) 『경소』(한불전 1권, 565).

명하면서 경(經)을 이해한다. 지금까지 원효가 『경소』에서 다룬 이종청정과 『정토론』과는 어떻게 중복되는지를 표로 정리해보자.

<표 2> 『아미타경소』의 이종청정 분류와 『정토론』과의 관계

		『아미타경』 정설분 내용	『아미타경소』 분류	『정토론』과 중복여부	
이 종 청 정 (二種清淨)	의 과 (依果) 공 덕	제1문단	즐거움만을 누림	무제난(無諸難) 공덕성취	○
		제2문단	난간, 그물, 나무	장엄(莊嚴) 지(地) 공덕성취	○
		제3문단	연못	장엄(莊嚴) 수(水) 공덕성취	○
			계단과 누각	종종사(種種事) 공덕성취	○
			연꽃의 광채	장엄 묘색(妙色) 공덕성취	○
		제4문단	천상의 음악	기악(伎樂)공덕	×
			황금 땅	보지(寶地)공덕	×
			꽃 비	우화(雨華)공덕	○
			타방 불국토 공양	자재(自在)공덕	×
			공양 후 산책	수용(受用)공덕	○
	제5문단	새의 설법	변화(變化)공덕	×	
		삼악도가 없음	대의(大義)공덕	○	
	제6문단	칠보라망	장엄허공공덕	○	
		선근을 쌓음	장엄 성(性)공덕	○	
	總名	삼계를 뛰어넘음	청정공덕	○	
	正 報 공 덕	광명과 수명이 무량	주(主) 공덕	○	
제자의 공덕		※ 반(伴) 공덕	○		
정정취에 드는 대중		대중공덕	○		
일생보처		상수공덕	○		

※ 『경소』에서는 정보로, 『정토론』에서는 의보로 분류한다.

3) 권수이종정인(勸修二種正因)에서의 인용

원효는 두 가지 청정한 인(因)을 닦으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를 정인(正因)이라고 한다. 이는 “적은 선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왕생할 수 없다”⁷⁸⁾는 경(經)에 내용에 관한 것이다. 원효는 “큰보리심이 많은 선근을 포섭하는 인연으로 이내 왕생할 수 있기 때문”⁷⁹⁾이라고 하면서 『유가사지론』의 「보살지 발심품」을 인용하여 설명한 뒤, 『정토론』의 ‘대의문성취공덕’을 인용하면서 경(經)을 해석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소』의 원문을 보자

『무량수경』에서 구품의 인(因)을 아울러 삼배(三輩)라고 한다. 삼배(三輩)에 관한 내용) 중에 모두 발보리심(이라는 말이) 있다. 『정토론』 중에 오직 이 경문(經文)의 뜻을 보이니, 말하길 “대승의 선근을 닦아서 이루어진 세계는 평등하여 꺼리거나 싫어한다는 이름조차 없다”라 하였다. 이 뜻은 바로 저 국토에 태어나는 자는 비록 구품(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동등하게 대승으로 발심한 선근을 인(因)으로 하므로, 평등하여 꺼리거나 싫어한다는 이름조차 없다고 바로 말하는 것이다.⁸⁰⁾

이는 『무량수경』에서 삼배(三輩)가 모두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평등하여 왕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7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중).

79) 『경소』(한불전 1권, 565중).

80) 『경소』(한불전 1권, 565중).

IV. 세친의 영향과 원효의 독창성

1. 세친의 영향

원효는 『경소』에서 ‘如論頌曰’이라던가, ‘如論頌言’이라는 구 아래에 『정토론』에 있는 계송이나 구절을 인용하여 『아미타경』을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원효는 『정토론』을 인용하고 깊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정토 경전인 『아미타경』을 재해석함으로써, 극락의 승묘(勝妙)함을 보이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달라도 정토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원효는 『경소(經疏)』의 내용을 대의·종치(宗致)·본문 해석으로 나눈다. 이 중 대의(大意)에서는 『정토론』의 오념문을, 종치(宗致)에서는 이중청정(二種淸淨)을, 본문 해석에서는 다수의 『정토론』 계송을 인용하고 있다. 정보(正報)의 마지막인 상수(上首)공덕의 설명을 마치고, 원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맺음한다.

『(정토)론』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 장엄을 나타냈으나. 이 경(經)은 간략히 네 가지 공덕을 보인다. 위의 두 문단을 합하여 첫 번째⁸¹⁾가 되니, 이중청정의 과를 보임을 마친다.⁸²⁾

81) 『경소』(한불전 1권, 563하).

원효는 『아미타경』을 서분(序分)·정설분(正說分)·유통분(流通分)으로 나누는데, 이 중 정설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는 이중청정의 과를 바로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두 가지의 정인(正因)을 닦도록 권하는 것이며, 셋째는 예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다. 이 중 위의 인용구 첫 번째가 ‘이중청정의 과를 보임’이다.

82) 『경소』(한불전 1권, 565중).

위의 인용구는 원효가 『경소』를 저술하면서 『정토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원효가 『아미타경』을 소(疏)하면서, 『정토론』만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본업경(本業經)』, 『섭대승론(攝大乘論)』, 『해심밀경(解深密經)』 뿐만 아니라, 이외도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토론』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경소(經疏)』의 큰 흐름이 바로 『정토론』의 이중청정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원효는 단순히 논(論)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논(論)을 해석함으로써 다시 경(經)의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토론』이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토대로 지어진 글이기 때문에, 원효는 『아미타경』을 해석함에 『정토론』을 상당히 훌륭한 참고 자료로 여겼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친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도 있었던 것 같다.

원효는 『경소』에서 경의 종치(宗致), 의과(依果), 왕생정인(正因)에서 각각 『정토론』의 ‘대의문성취공덕’을 인용하고 있다. 이 계송은 『경소(經疏)』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정토론』의 계송이며 원효는 이를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원효는 『아미타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종치(宗致)를 『정토론』에서 찾았기 때문에 정토학자로서의 세친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세친의 글에 매여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경(經)과 논(論)이 서로 맞지 않아 보일 때는 해박한 지식으로 잘 풀어내며, 자신의 견해도 잘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정토론』에 없는 원효의 독창성

세친은 4세기 사람이며, 원효는 7세기 사람이므로 두 사람의 활동 시

기는 대략 300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 김호성이 그의 논문⁸³⁾에서 밝히듯이 경전을 해석하면서도 새로움이 있고, 글쓴이의 철학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가 처해있는 사회상과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삶의 요소를 혼합하게 되는데, 원효 또한 『아미타경』을 해석하는 데 그러했다. 단순히 『정토론』을 비롯한 이전 시대 문헌의 내용을 가져다가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원효만의 통찰로 글을 풀어내고 있다.

『경소』의 대의에서 논(論)의 오념문을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선대(先代) 학자의 통찰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정토왕생을 위한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염불’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경(經)의 종치(宗致)와 본문을 설명하는 중에는 『아미타경(小經)』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성과 이승종(二乘種)이 (극락에) 태어나지 않음’을 세 번이나 인용한 것도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원효는 『아미타경』의 종치(宗致)를 이중청정으로 보고, 극락에 나쁜 것은 그 이름조차도 없는 것을 드러내면서 한 번, ‘극락의 새’가 과보(果報)로 받은 몸이 아니므로 ‘대의(大義)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 이때 원효는 『아미타경』은 악도(惡道)를 예를 들고, 『정토론』은 인도(人道)를 예를 든 것이므로 극락의 청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는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도 경(經)의 의미를 대중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한 맥락으로 보인다.

원효는 『정토론』에는 없는 수(水)공덕과 기악(伎樂)·보지(寶地)·자재(自在)·변화(變化) 공덕에도 『정토론』에서의 인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토론』의 것이 아니며, 수용(受用)공덕에서는 논(論)의 계승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정토론』과 같은 장엄공덕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미타경』의 내용과 맞지 않으면, 『정토론』을 과감히 버리고 그에 맞는 계승을 넣거나, 『정토론』의 계승에 그 내

83) 김호성, 「일음교와 자기철학의 글쓰기」, 『불교해석학 연구』, 민족사, 2009, pp.181-229 참조

용이 부족하면 오히려 새로운 계송을 집어넣었다. 다음에 소개할 계송은 이와 같은 원효의 독창적인 작업⁸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아미타경』의 세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공덕 중 ‘연못물과 금모래’를 언급하며 인용한 계송은 “모든 연못은 칠보로 둘러져 있고, 맑은 물은 팔공덕을 머금고 있다. 아래에는 황금모래가 쌓여 있고, 위로는 푸른 연꽃이 빛나고 있다”⁸⁵⁾이다. 『정토론』의 수(水)공덕은 “보배가 달린 꽃 천만 가지가 연못과 흐르는 못을 가득 덮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잎을 흔들면 서로 엇갈리며 빛이 어지러이 돈다”⁸⁶⁾라고 하였으나, 이는 『무량수경』⁸⁷⁾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므로 『아미타경』에 맞는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아미타경』의 네 번째 문단⁸⁸⁾에서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공덕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계송이다. “황금 땅에는 천상의 음악이 울리고, 그 사이로 꽃비가 흩날린다. 너무나 즐거워 피로함도 없으니 밤낮으로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⁸⁹⁾이다. 이를 인용구로 써서 원효는 기악(伎樂)공덕, 보배땅[寶地]공덕, 꽃비[雨華]의 공덕 그리고 자재(自在)공덕을 말하고자 했다. 기악·보배의 땅·자재 공덕은 논(論)에서 찾을 수 없으며, 우화(雨華)공덕은 논(論)에 우(雨)공덕⁹⁰⁾이 있음에도 원효는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셋째는 경(經)의 네 번째 문단에 관해 언급한 수용(受用)공덕에서 보인다. 논(論)의 “부처님 법의 맛을 사랑하고 좋아하여/선의 삼매를 받으

84) 원효는 이 계송을 『정토론』의 계송으로 소개한다.

85) 『경소』(한불전 1권, 564).

86) 『정토론』(大正藏 26卷, 230하-231상).

87) 『무량수경』(大正藏 36卷, 217하), “... 그 연못의 언덕 위에는 전단향나무가 있어 꽃과 잎이 드리워져, 향기가 두루 퍼지며, 하늘의 우발라화, 발담마화, 구물두화, 분다리화가 있어 서로 어우러진 빛이 아름답게 물 위를 가득 덮고 있다. ...”

88) 『아미타경』(大正藏 12卷, 347상).

89) 『경소』(한불전 1권, 564).

90) 『정토론』(大正藏 26卷, 231상).

로 삼는다⁹¹⁾”를 인용하면서도 원효는 『정토론』에는 없는 “시방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답으로 신통을 얻어 날개를 만들도다⁹²⁾”를 인용 구절 앞에 붙여서 『정토론』의 계송인 것으로 쓰고 있다.

넷째는 『아미타경』의 다섯째 문단에 있는 두 가지 공덕 중 ‘변화의 공덕’을 언급하면서 인용하는 계송이다. 원효는 “갓가지 여러 빛깔의 새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듣는 이는 삼보를 생각함에 생각(마저)도 잊고 일심(一心)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⁹³⁾”라고 쓰고 있다.

이 독창적인 계송들이 후대의 학자인 현일(玄一, 생몰년 미상)의 『무량수경기(無量壽經記)』권상⁹⁴⁾이나 운서주굉(雲棲株宏, 1535~1615)의 『아미타경소초(阿彌陀經疏鈔)』⁹⁵⁾에서도 인용되는 것만 보아도 정토계의 경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토론』에 있지도 않은 계송이 인용된 것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문헌이나 판본이 존재했거나, 김호성의 ‘저자론’⁹⁶⁾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세친’의 주장인 것처럼 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종요』나 『경소』에서 경(經)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문헌으로 회통한 것으로 보아, 원효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독창적인 작업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91) 『정토론』(大正藏 26卷, 231상).

92) 『정토론』(大正藏 26卷, 349중).

93) 『경소』(한불전 1권, 564).

94) 『무량수경기 권상』(한불전 2권, 248중).

95) 『아미타경소초』(巴新續藏經第22冊 第3卷, 650하).

96) 김호성, 『천수경과 관음신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238 참조.

“... 신앙사·심성사의 차원이자. 신앙의 역사, 혹은 하나의 텍스트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심성·마음속에서 누구의 저술로 인식되어져 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관점을 말한다. 설령 의상스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상스님이 지었다’라고 말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이는 문헌학적으로나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사의 차원이 있다는 주장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정토론』의 인용구만으로 『경소(經疏)』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시대적·공간적 차이가 상당함에도 원효가 세친에게 받은 영향이 실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원효는 여러 불교 문헌과 경전을 인용하여 『아미타경』을 해석하면서 도 『정토론』을 주로 참고한다. 이때 논(論)의 극락 장엄공덕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우선, 경(經)의 종치(宗致)를 이중정정으로 보고, 『정토론』을 인용하여 『아미타경』을 자세히 해설한다. 의과(依果)를 마무리하면서 논(論)에서 총상이 되는 ‘청정공덕성취’를 언급한 것은 세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특히 ‘대의문공덕성취’를 세 번이나 인용한 것은 극락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굳이 경(經)에 없는 표현을 『정토론』에서 끌어와 세 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효가 생각하는 극락의 제일(第一)공덕이 바로 ‘대의문(大義門)공덕성취’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는 원효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극락에는 ‘삼악도’가 없다는 제1원의 성취이며,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극락의 대중이 모양이나 이름과 상관없이 모두 정정취에 이른 이들이었음을 모두 담고 있는 공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효는 『정토론』을 맹목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강조하고 자신의 이해를 녹여낸 계송을 집어넣는 등의 새로운 해석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효의 독창성도 돋보이고 있다.

세친이나 원효는 정토학 뿐만 아니라 불교학 전체에 커다란 역할을 한 학자이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들의 저서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쓰여진 정토문헌을 신라에서 착실히 인용하여 정토계 경전을 풀이한 것은 각 문헌의 성격에 맞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효의 전언(傳言)이 아닐까 한다.

『아미타경소』는 그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토학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큰 문헌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菩提流志 譯, 『大寶積經』, 『大正藏』 11卷.
鳩摩羅什 譯, 『佛說阿彌陀經』, 『大正藏』 12卷.
婆藪槃頭 造·菩提流志 譯,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 『大正藏』 26卷.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大正藏』 36卷.
曇鸞 註解,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婆藪槃頭菩薩造并註』, 『大正藏』 40卷.
釋道倫 集撰, 『瑜伽論記』, 『大正藏』 42卷.
株宏 述, 『阿彌陀經疏鈔』, 『卍新續藏經』 第22冊.
元曉 著, 『佛說無阿彌陀經疏』, 한국불교전서 1권.
元曉 著, 『無量壽經宗要』, 한국불교전서 1권.
釋玄一 集, 『無量壽經記 卷上』, 한국불교전서 2권.
- 김영미, 「『불설아미타경소』 해제」, 『미륵상생경종요 외, 한국불교전서 신라 18 (원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김지근, 「『정토론』의 불토관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1집, 2012.
- 김호성, 『일음교와 자기철학의 글쓰기』, 『불교해석학연구』, 민족사, 2009.
- 김호성, 『천수경과 관음신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 김현희, 「원효의 정토사상과 무애의 아름다움」, 『한국미학』 10권 1호, 2011.
- 山口 益, 『世親の淨土論-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の試解』, 法藏館, 1966.
- 橫山 紘一, 장순용 譯, 『유식이란 무엇인가?』, 세계사, 1996.
- 장휘욱, 「원효는 왜 定性二乘의 왕생을 부정했는가」, 『원효학연구』 5집, 2000.
- 정철호, 「元曉의 淨土觀」, 『정토학연구』 제1권 1998.
- 주명철, 「정토왕생과 보살행 오념문」, 『불교학연구』 제33호, 2012.
- 平川 彰, 「淨土教の用語について」, 『日本仏教学会年報 (42)』, 1976.

Abstract

The Influence of Vasubandhu's
『Sukhāvātīvyūhasūtropadeśa』 on Wonhyo's
『Commentary on the Amitābha Sūtra Spoken by the Buddha』

Kim, Moon-seon(Ven. Mi-tan)
(Doctorate course in Dongguk University)

From the study focused on the inscription on the Buddha statue of Kushan Empire, we could notice that origin of belief in the the Pure Land go up to 1~2 A.D. This belief in the Pure Land had been developed more and more based on the 『Sukhāvātīvyūhasūtra』 and reached Vasubandhu wrote 『Sukhāvātīvyūhasūtropadeśa』. This is the only text about ‘the land of Amitabha’ written by Vasubandhu as well as the first commentary of Amitabha’s land existed untill now. It is very precious text to show us what the early belief in the Amitabha was like and how have affected next scholar like Tánluán[曇鸞] from China, Shinran[親鸞] from Japan and even Wonhyo[元曉] from Korea.

The scholar of Shilla[7C], Wonhyo quoted a lot of sentences from 『Sukhāvātīvyūhasūtropadeśa』 to author 『Amita-gyōng so』. He comprehended 『Amitābha Sūtra』 with Vasubandhu’s commentary and made, by quoting 『Sukhāvātīvyūhasūtropadeśa』, the meaning of 『Amitābha Sūtra』 more copious. Wonhyo, with these series of processes, exposed his own thought. Even though he had commented many sort of

Buddhist texts here, I can say Vasubandhu's have influence on his the most. Because the main stream of Wonhyo's had come from 『Sukhāvāṭīvyūhasūtropadeśa』 by Vasubandhu.

Key words

Pure Land, Amitābha Sūtra, Two kinds of Purenness, Vasubandhu, 『Sukhāvāṭīvyūhasūtropadeśa』, Wonhyo, 『Amita-gyōng so』